The background of the entire image is a solid bright yellow. Scattered throughout this background are numerous 3D question marks of varying sizes and orientations, all rendered in a metallic, copper-like finish. In the lower half of the image, a person's hands and arms are visible, holding a dark, thick book. The person is wearing a light-colored, long-sleeved button-down shirt. The book is held up in front of their chest, and the text is overlaid on the book and the background.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과 문해수업의 사례

어떤 아이에게 문해력은 삶의 무기, 어떤 아이에게 문해력은
그 자체로 장애물이 된다.

1강.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할까?

나는 왜 읽고 쓰기에 집착했나?

- 이렇게 무식해도 되나? 개인의 생각, 의견, 주장,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시민의 힘이라는 신념
- 세상을 읽을 힘이 없을 때 자본과 언론, 상식과 유행, 다수와 편견, 권력과 권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 배움을 거부하고 흥정하는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 문해력이 기초학력이라는 생각

2014~2020 콩나물시루 활동

2017~2023 야한독서

2017~단편소설 페스티벌, 인문학 캠프

2020~에세이 쓰기 수업 시작

2021~ 교과목 ‘문해’ 수업 시작

2021~전교생독서토론 북톡 시작

문해력을 둘러싼 말, 말,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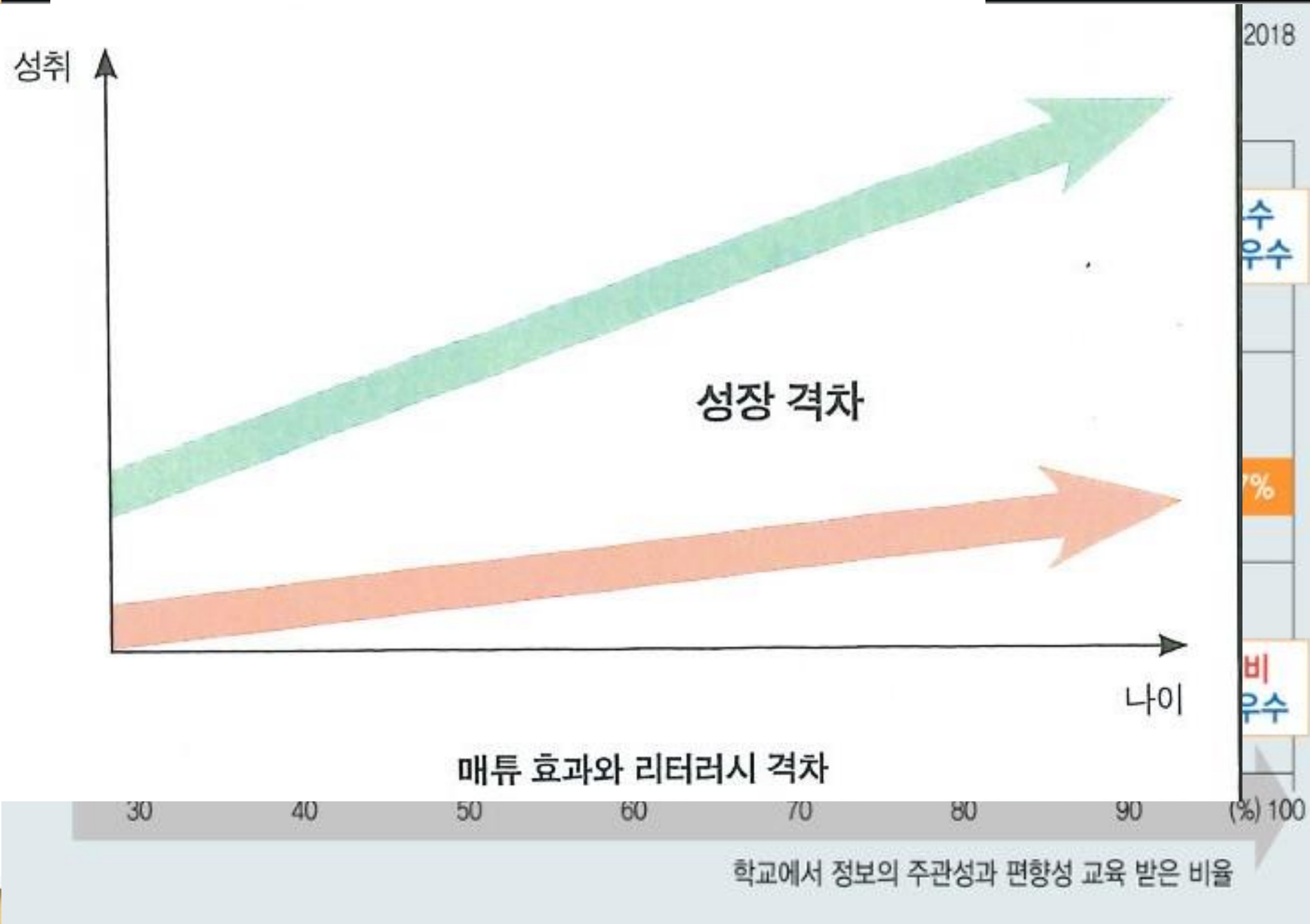
심심한 사과, 사흘, 북침, 금일, 고지식 ...

임업, 물업?

성인의 **75%**가 '실질 문맹자'?

OECD 최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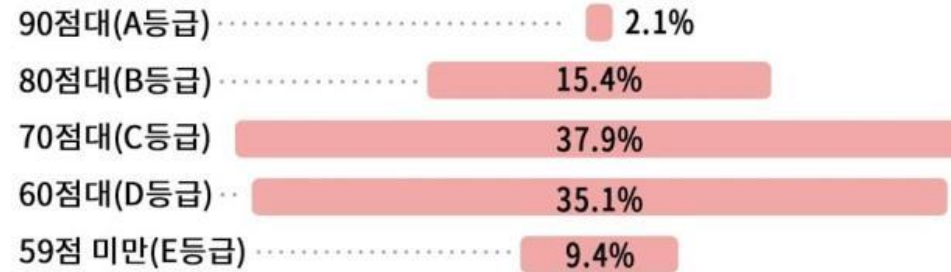
명징과 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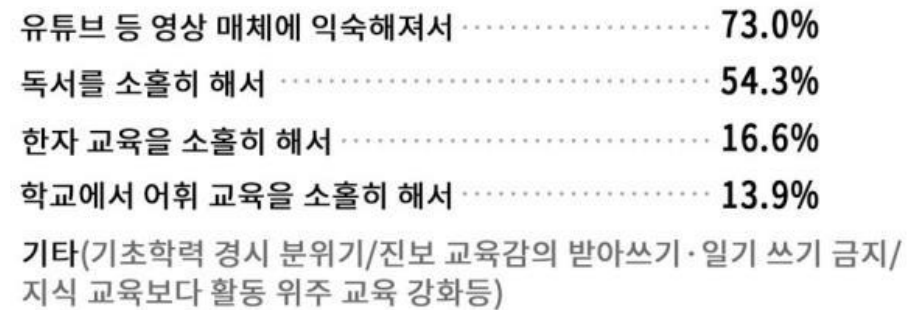
아이들은 왜 읽지 않나?

교사들이 점수로 매긴 요즘 학생들 문해력 수준

※ 100점 만점



교사들이 생각하는 문해력 하락 원인 ※ 중복 응답



※ 한국교총이 2021년 4월 9~16일
전국 초·중·고 교사 1,152명 대상으로 설문

평균적으로 많이 읽는다

읽기의 빈부격차 크다

쓸모가 없다

책은 다 교과서(적)다

부담스럽다, 두렵다

아이들은 왜 못 읽나?

몰라서(어휘력, 배경지식 등)

알아도 활용을 못해서

사실은 잘못 알아서

문해력 논란에서 주목하는 것

- 우치다 타츠루 <하류지향>(2007)
- 새로운 유형의 사회집단이 출현하다

공부를 혐오하는 아이들, 학력저하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 맞춤법을 모르는 대학생들, 모르는 게 있어도 개의치 않는 아이들, '이걸 하면 뭐가 좋아요?'라고 묻는 아이들, '불쾌함'을 화폐로 등가교환 하려는 아이들

문해력 저하는 사실,

글을 읽고 생각하고자 하는 동기의 저하

가치와 의미, 추상적 영역을 이해의 부족

삶의 주체로서, 문제해결의 능동성의 상실

왜 책(긴 글, 종이 글)을 읽어야 하나요?

기초학력의 핵심역량

디지털미디어 역량의 기초

정보, 기초 지식의 원천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

주체성, 공적 존재로서의 삶, 사회적 실천

읽고 이해한다는 행위는?

-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인지활동이다! 뇌는 아직 문자가 낯설다.
대단히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이다.

텍스트 \longleftrightarrow 나

(기호 해독, 어휘, 행간, 문맥, 맥락, 배경지식 활용, 나의 생각, 나의 관점)들이 섞이는 통합적인 과정, 생산

기호를 가지 놀고/

생각을 가지고 놀며/

세상을 가지고 노는 행위다.

모든 텍스트는

모든 텍스트는 예외 없이, 언제나 편향되어 있다.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 체제와 진영 속에서 사는 한
읽고 쓰는 행위는 이념적일 수 밖에 없다

21세기 탈진실의 시대

다채로운 지식과 관점이 경쟁하고 공존하는 사회

다양한 정체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텍스트를 만든다

진리나 진실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원, 문해력 교육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 인정

원문제목 : Detroit Students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Literacy, Court Rules

자료출처 : The New York Times [원문보기]

대상분류 : 교육일반

키워드 : 문해 교육, 교육권 보장, 읽기 심화 수업, 교과 교사 부족

발행일 : 2020.05.13

The New York Times(2020.04.27.)

- ▶ 최근 연방 법원이 이례적으로 학생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음. 연방 법원은 지난 4월, 미시건(Michigan) 주가 교육 제공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학생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역량인 문해력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해당 판결은 디트로이트(Detroit) 시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임.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자격을 갖춘 교사가 부족한 문제와 읽기 심화 수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 ▶ 디트로이트 시 학생의 대부분은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학생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 그간 디트로이트 시 공립학교의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과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미시건 주가 얼마만큼의 보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음. 그러나 지난 2월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가 문해력 교육 권리에 대한 소송에서 지면서 약 5,300만 달러(한화 약 648억 원)의 보상금을 75개의 저성과 초등학교에 배부한 것을 보면, 미시건 주 역시 상당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 최근 미국 내에서도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민 역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해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학생들의 시민교육 및 문해력 교육과 그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최근의 판례들이 향후 시민교육 및 문해력 교육 시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프레이리 같은 사람들은
문해력을 '문해자의 사회적.정치적 세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문해력을 개인들의 기계적인 기능
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말하고, 읽고, 쓰고,
듣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들의 사회적.정치적 행위로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면, 문해력은 글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러한 의미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 즉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누구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
러한 사람들에게 있어 개인의 문해 행위는 단순히 글을 읽고 이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수용하여 문해력을 다시 개
념화 하면, 문해력은 '사회적 불평등 및 왜곡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문해력이 기초학력

문해력은 경험이다

문해력은 문화자원

문해력은 세상을 읽는 힘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삶

문해력의 의미,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

문해력은 글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 즉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누구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는가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 윤준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2009)

■ (독서교육사전(한국어문교육연구소·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2006))